

압존법을 통하여 본 경어법의 변화 연구*

김재민
(전북대학교)

Kim, Jae Min. 2004. A Study of the Change of Honorific Expressions Represented in "apconpep".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1), 137-152.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generation difference at the usage of "apconpep". One questionnaire was asked to 22 students and their 22 parents, and another one was asked to 22 middle school teachers. To analyze the answers, X^2 was used. The results reveals that the traditional "apconpep" is used only at the very restricted cases, which show clear 'power' differences. Several adjusted forms of honorifics, instead of "apconpep", are being used in most cases, without generation difference. Especially, when 'solidarity', instead of 'power', has stronger influence, as in the conversation among family members, the adjusted form of '-ka + verb' is being used. The above findings show that our society respects personal equality more than before.

주제어(Key words): Honorific expressions, X^2 , "apconpep", power and solidarity

1. 서론

우리말의 경어법 체계와 쓰임은 순수 문법적 연구와 함께 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 분야이다. 나아가, 사회의 변화가 빠르고 커짐에 따라 이것을 반영하는 경어법도 변화 될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연구와 변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말의 경어법 현상 중에서도 압존법은 그 쓰임이 가장 복잡한 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예전에 없던 관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 쓰임이 겉으로는 혼란스럽고 규범 없이 쓰이는 것처럼 보이기 까지 한다. 오늘날에 오면서 높낮이 말씨는 과거에 비해 점차 단순화되어,

* 이 논문은 2001년도 전북대학교의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복잡한 상대적 높임 체계는 줄어들고 격식적 관계에서의 절대적 높임이나, 횡적 친밀화에 따른 절충적 방식의 높임 체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압존법도 그 높임의 정도가 많이 횡적화 되고 단순해졌다고 주장되고 있다. (cf. 김혜숙 1995, 김재민 1998, 신혜경 1996, 등)

언어사용의 변화를 관찰하려면 두 시대 사이를 비교해야하지만,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두 연령집단을 비교하므로 해서 언어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려한다. 본고에서도 먼저 압존법의 사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히 세대간(50대와 20대)의 차이가 있는지를 현장시간 방법(apparent-time method)인 설문과 통계치를 통하여 살펴보고, 현재의 용법이 어떤 규칙 하에 쓰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2. 압존법의 쓰임

2.1. 정의

서정수(1984)는 압존법을 두 대상자가 다 존대돼야 할 경우이나 더 높은 대상자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딱 덜 높은 존대 대상자를 일부러 낮추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김석득(1977:41)의 명칭으로는 ‘더낮춤법’에 해당한다. 이들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화자(話者), 청자(聽者), 그리고 주체(主體)라고 칭한다. (cf. 김중진1976, 김혜숙 1995)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화자를 N1, 청자를 N2, 그리고 주체를 N3로 칭하고자한다. 따라서, 압존법의, 경우 N1입장에서 보자면 N3도 높임표현을 써야하는 대상이지만, N3와 비교하여 N2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N2에 대하여 중간 또는 낮춤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라 하겠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예가 되겠다.

- (1) 장군님, 2 중대장이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N1-선임하사)
- (2) 사장님, 김 과장이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N1-평사원)

만약, 선임하사와 2 중대장, 그리고 평사원과 김 과장이 직접 대화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3) 2 중대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4) 김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즉, (3)과 (4)에서 존칭 접미사 ‘-님’과 높임 주격조사 ‘-께서’, 그리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인 ‘-시’가 (1)과 (2)에서는 빠지는 것이다. (3)과 (4)에서는 N2의 위치였던 사람이 (1)과 (2)에서는 N3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2. 압존법 사용 규칙과 변화

경어법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으며, 경어법 체계 중의 하나인 압존법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더 나아가, 압존법을 써야하는 상황은 높아야할 대상이 두 명이나 되므로 쓰임이 복잡하고 용법의 변화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겠다.

엄격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나 계급이 뚜렷한 사회나 집단에서는, 압존법 규칙이 (5)와 같은 경우에 매우 단순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 (cf. 김중진 1976)

- (5) N1 下
- N2 上
- N3 中

즉, 2.1에서의 설명처럼,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고 청자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 주체를 완전히 낮추는 용법이 되겠다. 성기철(1985)은 압존법을 ‘상위 청자 제약’으로 칭하고, 청자가 상위일 때 다른 이에 대한 경어를 쓰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혜경(1993), 김혜숙(1995)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최근의 사용에서는 규칙 (5)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 (6) 형님께서 가신답니다 (가신다내요). (N2; 아버지 또는 어머니, N3; 나이든 형님 또는 손위 동서)
- (7)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신다는데요. (=김혜숙 (3))
- (8) 할아버지, 아버지가(께서)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 (9) 이 부장이 그 계획안을 내셨습니다. (N2; 사장)

가족 간, 또는 계급이 비교적 뚜렷한 직장에서의 대화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압존법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어렵긴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인간관

계가 달라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신혜경(1993, 1996)은 요즈음은 화제의 인물에 대하여 존경표현을 하는 절대경어적 용법이 많이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간에도 절대경어가 쓰이므로 손자가 조부모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 현재의 언어상황이라는 것이다. ‘절대경어’란 높여야 되는 대상을 듣는 이가 누구라도 높임표현을 써서 존경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김혜숙(1995)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과거에 비하여 요즈음은 전체적으로 높임의 단계가 낮아져가고 있고, 높임의 인물이면 그대로 알맞게 높여주는 단순화의 경향을 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누구와 누구의 관계성보다는 모두를 개개인으로 놓고 언어현상을 규정짓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3. 설문조사

3.1. 설문대상

설문1의 조사는 2002년 10월에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남녀 각각 11명씩을 각 세대별로 선정하여, 총 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세대간 차이를 관찰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므로 50대 부모를 둔 20대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대상 학생 모두는 20세에서 27세 사이에 있고, 50대는 모두 5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다. 50대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졸업에서부터 대학졸업까지 다양하였다.

설문 2는 설문 1을 보충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2004년 3월에 전주의 한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두 25명을 실시하였으나, 3명이 압존법 규칙을 알고 있어서 그들을 제외하고 2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은 모두 평교사였으며, 나이는 20대 후반부터 60세까지 다양하고, 남자 9명 여자 13명이다.

3.2. 설문내용

설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부록 참조) 첫 부분은 1번에서 3번까지의 설문으로, 압존법이 사용되는 현장을 학교로 가정하고 학교 내에서의 위계인 교장, 평교사,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경어법, 그리고 압존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Brown and

Gilman(1960), Sohn(1983), 김재민(1994)등이 주장하고 있는, ‘힘’(power)과 ‘연대감’(solidarity)을 두 가지 주요 요소로 보고, 이 요소들이 사용되어질 표현을 학교와 가정의 구성 성분을 골라 설정 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학교라고 하는 상황 내에서의와 외부에서의 언어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 2의 두 항목을 추가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4번에서 6번까지로, 가정 내에서의 압존법 사용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리고 삼촌이 등장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것이다.

세 번째는 설문 7번으로서, 이는 위계가 분명한 선생님과 선배를 설정하여 만든 것이다.

4. 결과분석

설문대상이 20대와 50대 남녀동수 이므로 남녀의 차이도 분석해 볼 수 있으나, 20대와 50대의 세대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성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설문의 답 중에서, 높임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는, ‘...N2+께서 ... V2+시...’의 경우(각 설문 1번, 3번)이고, 둘째는 ‘...N2+가(이)...V2+시..’의 경우(각 설문 4번, 5번)이다.¹⁾ 낮춤, 즉 압존법 사용의 경우는, ‘... N2+가(이) ... V2...’(각 설문 6번)이다. 2번 답은 N3에 높임 격조사 ‘-께서’를 붙이고 V2에는 ‘-시’를 뺀 혼합형이고, 4번 답은 N3에 낮춤 격조사 ‘-가(-이)’를 붙이고 V1에 높임 ‘-시’를 붙인 혼합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누어 볼 때 답 1번과 3번은 ‘극존칭’이라 할 수 있고, 2번, 4번, 5번은 ‘존칭’, 그리고 6번은 ‘낮춤’, 즉 압존법의 사용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높임의 경우 2번과 4번의 쓰임은 없거나 매우 적었다. 즉, 전체적인 압존법의 사용에서 관계설정의 변화와 혼란의 결과 여러 형태가 쓰이고 있지만 쓰임의 규칙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혜숙(1995:31)도, 극존칭이나 낮춤의 사용이 아닌 경우, ‘-께서’를 뺀 절충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2번답 보다는 5번답을 더 많이 쓰고 있

1) N1은 화자, N2는 청자, 그리고 N3는 주체를 표기한 것처럼, V1은 설문에서 첫 번째 동사, 즉 주체의 술부 동사를, 그리고 V2은 본동사, 즉 두 번째 동사를 표시한다.

는 것으로 뒷받침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설문 1에서 3까지는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가정에서의 아버지가 서로 얽혀있을 경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이다.

먼저 설문 1과 2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50대와 20대 모두 (1)번과 (3)번을 대부분 사용하겠다고 답하여, 아버지에 대하여는 교장선생님이건 담임선생님이건 세대차이 없이 극존칭 절대경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

표 1.

	높임(1-4)	낮춤(5+6)
50대	20	1
20대	20	2

$X^2=0.31$ $p<0.20$ $df=1$

표 2.

	높임(1-4)	낮춤(5+6)
50대	17	5
20대	16	6

$X^2=0.007$ $p<0.20$ $df=1$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교장선생님 앞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아주높임의 (1), (3)과 함께 절충형인 (5)도 50대와 20대에서 각각 4명, 3명이 쓰겠다고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담임선생님 앞에서의 각각 1명씩과 다음 ‘표 3’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교장선생님에 대한 상대적 사회적 위치를 담임선생에 비하여 높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3.

	높임(1-3)	절충(5)
선생님/아버지	42	2
교장선생님/아버지	33	7

$X^2=3.68$ $p>0.10$ $df=1$

2) 본 논문에서의 결과분석은 $p<0.05$ 의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아버지를 낮추는 (6)번의 대답도 4명이 응답하여 한명도 없는 선생님 앞에서의 경우와 대비가 된다 할 수 있다. 즉, '표 4'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장선생님 앞에서는 담임선생님 앞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게 압존법을 쓰고 있다.

표 4.

	높임+절충(1-5)	낮춤(6)
선생님/아버지	44	0
교장선생님/아버지	40	4

$X^2=4.19$ $p>0.05$ $df=1$

여기에서도, '표 5'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대 차이는 나지 않았다.

표 5.

	높임(1-4)	낮춤(6)
50대	21	1
20대	19	3

$X^2=1.07$ $p<0.20$ $df=1$

설문 3의 결과는 학교라는 조직에서 교장선생님과 평교사인 담임선생님이 대상일 때, 압존법의 사용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압존법 원칙대로라면 교장선생님 앞에서 담임선생님은 낮춰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2)번을 제외하고 답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존칭 (1)번과 절충 높임형인 (5)번, 그리고 낮춤형인 (6)번이 유의미한 차이 없이 50대, 20대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표 7'). 이와 같은 혼란스런 쓰임은, 교장선생님 앞에서는 담임선생에 대하여 전통적 압존법과 절충형 높임이 혼재해 쓰이고 있는 결과이다.

표 6.

	50대	20대
(1)	4	2
(2)	1	0
(3)	1	5
(4)	4	1
(5)	7	8
(6)	5	6

표 7.

	높임(1-5)	낮춤(6)
50대	17	5
20대	16	6

$$X^2=0.12 \quad p<0.20 \quad df=1$$

이것은 세대차이 없이 담임선생님에 대하여 경어를 쓰는 경우가 생겨난 경우라 해석할 수 있겠으며, 더 나아가 극존칭인 (1)번과 (3)번도 절대경어의 사용이라는 현상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8').

표 8.

	극존칭(1+3)	절충(4+5)
50대	5	11
20대	7	9

$$X^2=0.53 \quad p<0.20 \quad df=1$$

다만, 극존칭 (1)번보다는 절충형인 (2)-(5)가 세대차이 없이 많이 쓰이며 (61.4%), 절충형 중에서도 (5)번 'NP2+이 ... V2+시' 형태가 가장 많이(55.6%)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대의 학생들에게는 아버지와 선생님은 '힘'보다는 '유대감'이 더 강해졌으며, 교장선생님은 아직 '힘'이 더 강한 사회적 지위로 여겨진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 결과는, 설문 2의 1번 결과와 대비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설문1의 3번 설문은 학교 조직 밖에서 학교 내부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언어 현상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며, 설문 2는 학교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선생님들 사이의 경어법 사용에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살펴 보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표 9.

	1번 설문	2번 설문
(1)	6	7
(2)	3	3
(3)	4	6
(4)	1	0
(5)	3	1
(6)	5	5

위의 '표 9'는 설문 2의 결과로서, '학교'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도, 즉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절대경어 표현과 절충형, 그리고 압존법이 매우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압존법 표현인 (6)번 답은 설문 1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며, 다만, 절충형 (5)번 보다는 'NP2+ -께서'형인 (1-3)번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표 10.

	NP2+-께서 (1-3)	NP2+-이 (4+5)
내부	29	5
외부	13	20

$$X^2=15.08 \quad p>0.001 \quad df=1$$

위의 '표 10'이 보여주는 결과는, '학교'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오히려 더 압존법은 와해되고 있으며, 절대경어의 성격이 강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와 가정의 두 축이 서로 교차할 경우를 살펴본 결과, N2와 N3가 서로 다른 축에 속한 경우(학교와 가정)는, 김혜숙(1995)와 신혜경(1993)의 주장처럼, 절대경어가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교장선생님과 아버지의 경우는 평교사와 아버지의 경우보다 압존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평교사에 비하여 아직 매우 '힘'이 강하고 '연대감'은 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축일 경우(학교), 즉 학교 내의 위계 사이에서도, 압존법의 사용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았다.

설문 4에서 6까지는 가정에서의 압존법 사용을 알아 보고자하는 설문이다

다. 먼저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존대는, 설문 4의 결과, 절충형 (2-5)와 낮춤이 세대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

	절충(2-5)	낮춤(6)
50대	13	7
20대	11	11

$$X^2=0.96 \quad p<0.20 \quad df=1$$

한편, 절충형 중에서는 (5)번을 83%(22/24)가 사용하고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압존법의 쓰임과 절대높임이 혼재해 쓰이고 있지만, 절충형의 경우 'N2+가(이) ... V2+시'의 형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설문 3의 경우는 매우 혼란스럽게 극존칭에서부터 압존법까지 쓰였으나, 가족 간의 경우처럼 위아래가 뚜렷하지만 친근한 경우의 쓰임은, 김혜숙(1995)의 주장처럼, (5)의 절충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 5는 아버지 앞에서 나이든 작은아버지에 대한 높임의 경우인데, 3번 설문에서처럼 세대차이 없이 극존칭, 절충형, 그리고 낮춤이 모두 쓰이고 있다. 이 경우 극존칭(1+3번 답) 보다는 절충형(2+4+5번 답)이 많이 쓰였고(78%), 절충형 중에서도 5번 답이 많이 쓰였다 (68%).

표 12.

	높임(1-5)	낮춤(6)
50대	19	3
20대	14	8

$$X^2=3.03 \quad p>0.10 \quad df=1$$

또한 '표 12'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대차이 없이 전통적 압존법 보다는 높임이나 절충형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어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는 절대경어의 절충형 만이 앞으로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겠다.

한편, 6번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젊은 삼촌의 경우에 있어서는, '표 13'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통적 압존법이 유지되고 있긴 하나, 세대차이 없이 절대 높임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절대 높임의 경우에 절충형 (5)가 절대적으로 많이(87.5%) 쓰이고 있음은 5번 설문의 결과

와 같다.

표 13.

	높임(1-5)	낮춤(6)
50대	9	13
20대	7	15

$$X^2=0.49 \quad p<0.20 \quad df=1$$

설문 7은 ‘힘’을 극대화 시킨 상황으로 선생님과 선배를 구분하였다. 이 경우는 세대차이 없이 유의미하게(86.4%) 압존법이 여전히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절충형을 쓰겠다고 답한 경우는 대부분(83%)이, 6번 설문의 결과처럼, (5)번을 선택하였다.

5. 결론

설문 1에서 3번까지의 결과를 보면, 학교와 가정의 두 축이 서로 교차할 경우, 김혜숙(1995)와 신혜경(1993)의 주장처럼, 세대차이 없이 절대경어가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교장선생님과 아버지의 경우는 평교사와 아버지의 경우보다 압존법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평교사에 비하여 아직 매우 ‘힘’이 강하고 ‘연대감’은 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의 위계 사이에서도, 압존법의 사용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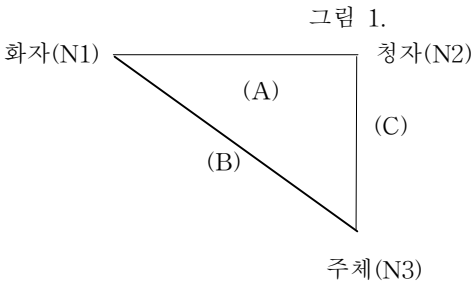
가족간의 압존법 사용을 보면, 설문 4, 5, 6번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 사이에서는 세대차이 없이 절대높임의 한 표현인 (5)번이 주로 쓰이고 있어서 압존법은 더 이상 이들 사이에서는 쓰이지 않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나이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전통적인 ‘힘’ 보다는 ‘유대감’이 더 큰 요소로 자리 잡은 수평적 관계로 변했음을 알 수 있겠다.

한편, 6번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젊은 삼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통적 압존법이 유지되고 있긴 하나, 세대차이 없이 절대 높임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설문 7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설문의 설정은 모두 ‘힘’을 극대화 시킨 상황으로, 이 경우는 세대차이 없이 유의미하게 압존법이 여전히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절충형을 쓰겠다고 답한 경우는 대부분 (5)번을 선택하여, 앞으로의 절충형 사용 형태

를 예측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세대차이를 보인 경우는 ‘교장선생님과 아버지’의 경우 밖에 없었다. 이는 20대의 경우 아직 교장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힘’을 더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절충형을 쓰겠다고 답한 경우 (5)번 표현을 가장 많이 골라, “NP2+-가(이) ... V2+다”의 형태가 압존법이 무너진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겠다.

결국, 설문 (6)과 (7)의 경우처럼, 압존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써, 관계를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위의 그림에서 보자면, 전통적으로는 우리말 화자는 (A), (B), (C)의 모든 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경어법 및 압존법을 선택하였으나, 요즈음의 우리말 화자는 (A) 또는 (C)의 거리에 상관없이, (B)의 거리에 따라, 화자와 주체와의 거리는 분명히 가깝고 주체와 청자와의 거리가 멀 때, 전통적 압존법이 쓰이고, 다른 경우는 절충형을 쓰는 경향이라 할 수 있겠다. 유대감이 큰 가족간의 경어사용 같은 경우는 ‘NP2+-가(이)’가 쓰이고, 유대감보다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N2+-께서’가 쓰일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거리에 영향을 미치던 것들 중에서, 평등화의 영향으로, ‘힘’은 약해지고 ‘유대감’이 더 큰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설문의 답 중 절충형의 형태 중에서는 (5)번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김석득. (1977). 더 낮춤법과 더 높임법, *언어와 언어학*, 5.
 김재민. (1994). 존대법 사용에 있어서 남녀 성 차이의 상관관계, *영어영문*

학, 17.

- 김재민. (1998). 경어법 사용의 세대간 차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언어학*, 6(2), 337-358.
- 김중진. (1976). 전북 고창 지역어의 경어법 연구, *국어문학*, 18.
- 김혜숙. (1995). 현대 국어 생활에 나타난 높낮이 말씨 선택의 변화 양상, *사회언어학*, 3(1), 17-34.
- 서정수. (1984). *존대법의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성기철. (1985).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서울: 개문사
- 신혜경. (1993). 한국과 일본 직장 남성들의 대우표현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1.
- 신혜경. (1996).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대우표현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4(1), 83-97.
- Brown and Gilman. (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T. Seobeok (Eds.)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 Sohn, H.M. (1983). Power and Solidarity in Korean Language, *Korean Linguistics*, 3.

부록

<설문 1>

*** 다음은 우리말의 경어법(존대법)의 쓰임을 알아 보고자하는 설문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신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이: 세 성별: 학력:

***다음 중 옳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골라주십시오.

1. (1)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2)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 (3)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 (4) 선생님, 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5) 선생님, 아버지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 (6) 선생님, 아버지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2. (1) 교장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교장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교장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교장 선생님, 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교장 선생님, 아버지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교장 선생님, 아버지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3. (1)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교장 선생님, 선생님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4. (1)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5. (나이 든 작은아버지)
(1)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6. (결혼하지 않은 삼촌)
(1) 아버지, 삼촌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아버지, 삼촌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아버지, 삼촌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아버지, 삼촌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아버지, 삼촌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아버지, 삼촌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7. (1) 선생님, 3학년 선배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2) 선생님, 3학년 선배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 (3) 선생님, 3학년 선배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 (4) 선생님, 3학년 선배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5) 선생님, 3학년 선배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 (6) 선생님, 3학년 선배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설문 2>

성별_____ 나이_____

1. (1반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위인 분입니다)

- (1)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2)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 (3)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 (4)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5)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 (6)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2. (교감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위인 분입니다)

- (1)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2)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 (3)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 (4)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5)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 (6)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김재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과

전화: 063)270-3291

이메일: jmkim@chonbuk.ac.kr

Received: 13 Jan, 2004

Revised: 26 Feb, 2004

Accepted: 19 Mar, 2004